**써~~**

* 일단 써. 양이 많아지면 질이 높아진다는 믿음을 가져라

그을 너무 잘 쓰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. 잘 쓰려고 할 때 잘 이라는 것을 버려라

내 생각을 이동시켜 놓은다 라는 생각으로 쓰면 품질로 이어진다.

**가능하면 사람 이야기를 해라 - 휴머니티 /크리에이티브 테마**

* 사람의 이야기가 공감을 얻고, 반응을 일끌어 내고, 울림이 크다..

사랑,긍정,용기,희망,위로,감사,믿음,겸손,배려 - 사람의 성분, 몸의 성분...사람의 성분은 칼슘, 단백질 등이 아니다 - 상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할 때도 사람의 성분 하나를 테마로 쓰면 된다..세상이 바뀌기도 한다.

인생!!

친구가 있으세요?

그럼 됐습니다.

술맛의 10%는 술을 빚은 사람입니다.

술맛의 90%는 마주 앉은 사람입니다.

Storytelling은 전어다. 전어에 며느리 이야기를 입힌 것처럼 사람의 스토리를 입혀 보라~~

반복과 나열도 글쓰기 기법중의 하나다

**카피작법 제1조 1항**

* 글자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- 글을 쓸 때 구체적으로 쓰라. 구체적이기 때문에 머리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.
  + 잘생겼다- 장동건 동생일거야 / 예쁘다 - 김태희 스무살 때 / 많다 - 삽시육만칠천팔백개 /
  + 담배꽁초나 가래침을 바닥에 뱉지 마세요. 청소하는 아주머니 관절이 너무 힘들어요.
  + 광명유기공방-전통의 혼, 조상의 소중한 문화유산 ~~~~  > 오늘은 황희정승과 겸상입니다.
  + 8할이 고기, 김치찌개전문점 /따불고기 주는 김치찌개 전문점
* 무라카미 하루키
  + 4밀리미터 정도 고개를 끄덕였다
  + 양동이 세 개에 가득 담길 만큼 거짓말을 늘어놓았다
  + 머리는 길지만 천박한 여자애를 이백오십 명은 알아

**구체성 - 내 글을 읽는 사람에게 그림을 한 번 그려줘 봐야 겠다. 라고 생각하고 쓰라**

**부엌칼**

**관찰력**

**로미오와 성춘향의 결혼**

* 낯설게, 불편하게 조합하십시오.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만나면 반응하지 않는다. 낯선것, 불편한 것을 만나면 반응한다.
  + 아름다운 고리대금업자
  + 신제품 김병관
  + 사람특별시 - 한명숙 전 장관 - 그런데 낙선 ㅋㅋㅋ
  + 광할한 인간 정도전
  + 엄마수업
  + 한여름의 방정식
  + 심리학콘서트
  + 오래된미래
  + 화요일의 두꺼비
  + 8월의크리스마스
  + 살인의추억
  + 우아한거짓말
  + 성실한나라의앨리스
  + 너나잘하세요
* 문장력은 어휘력
  + 나는 사이다를 마셨다. > 나는 사이다를 들었다, 열었다, 만났다,빨았다, 흡수했다, 허락했다, 나는 나에게 사이다를 줬다. 나는 사이다를 입에 물었다. 사는 사이다로 입을 적셨다.

**깍두기 썰듯 깍둑깍둑**

* 바디카피는 부엌칼로 쓰십시오 > 문장이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그것을 두 분장이나 세 문장으로 나누십시오. 나누다 보면 비문도 사라지고 구체적이게 된다.
* 의미와 재미, 둘 중 하나라도 잡아라
* 조립, 분리, 중의, 발췌, 회전, 리듬
  + 조립 / 가 - 가, 라고 말하면 나,혼자 남는다 다,안고 가야지.
  + 분리 / 헤어짐 - 좋을 땐 상대를 업고 다녀도 무겁지 않지만 싫어지면 상대의 머리카락 한 올도 짐으로 느껴진다. 이를 ~~
  + 분리 / 나이키 - ㅅ람에겐 세가지 키가 있다. 선키, 앉은키, 나이키. 그러나 신체검사를 할때도 나이키는 재지 않는다.
  + 중의 / 허우적, 뭉그적, 흐느적 - 인생의 삼 적
  + 발췌 / 프로와 아마의 차이 - 아마추어는 늘 아마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.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확신이다.
  + 리듬 /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, 제대로 제주도.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강원도
* 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는 무엇인가?? -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는 무엇입니까?
  + 가족
  + 사랑
  + 나
  + 엄마
  + 꿈
  + 행복, 건강, ㅈ유, 열정, 친구, 사람 으로 이어지다 16위가 돈....그 아래에 아버지..그나마 50위내에 아빠가 있었음..ㅋㅋㅋ
  + 엄마 - 미안해요 /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요
* 말장난을 도와주는 교재 - 국어사전, 우리말 역순사전, 그리고 정철작가의 책 ㅋㅋ
  + 단국대는 지렛대, 단국대는 기상대, ~~~단ㄱ구대는 군악대

**관찰력**

* 언제일까? 글쟁이가 행복한 순간? >내 스스로 내가 만들고 찾아낸 것 --그 때가 언제일까~
  + 글은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쓴다
  + 걸레 - 성직자(자기 자신을 더렵혀서 세상을 닦는다)와 조폭(걸레들은 대부분 수건 출신이다..문신- 군데군데 글자자국-은퇴한 조폭의 모습)
  + 관찰한다
  + 발견한다
  + 확장한다 - 글을 쓰면 쓸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것
  + 종이컵 / 한글자 /  발
  + 달과 별, 땀과 침
* 관점 - 세상의 다양한 눈을 활용하여 관찰하는 것을 관점이다. 책에 대한 것도 관점에 따라 다르다.

**생각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찾는 것. 눈을 잘 사용하면 찾을 수 있다.**

**주교재 - 카피책...^^**

**평생 물에 젖은 오징어가 마른 안주의 대표가 되었다.**